



“마음은 어떻게 닦나요”

권대용씨 불교동화 '돼지 저금통속의 부처님'

해답을 던져주는 불교동화다.
 “할아버지, 마음은 어떻게 닦나
 요?”라는 초등학교 4학년 주인공 동
 이의 물음에 “남에게 베풀며 몸을 건
 전하게 하고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
 배우며 거짓없이 순수하게 사는 것이
 마음을 닦는 것이라네”는 할아버지의
 설명은 불교적 삶이 어떤 것인가를
 그대로 보여주기엔 충분하다.
 이 책은 주인공 동이와 동이의 할
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, 친구들, 이
 웃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앞으로 부딪
 칠게 될지도 모를 문제들을 어린이의
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
 준다. 또 각 장마다 생각해 보는 난
 으로 만들어 놓은 ‘마음이 맑아지는
 불경이야기’는 <법구경> <화엄경> 등
 의 불경경전을 중심으로 배우는 마
 음, 윤회란 무엇일까, 슬픔과 아픔
 을 이겨내는 법, 더불어 사는 삶 등

“
 자기것 버리고
 남에게 베풀며
 욕심을 버리고
 거짓없이
 사는 것이란다
 ”

을 읽고 재미있게 풀어놓아 자비의
 소중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
 성을 일깨워 준다.
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
 고 있는 어린 동이에게 절친한 짝 장
 미가 전화를 하고, 아버지가 실직을
 하게 되는 등 시련이 닥친다. 그러나
 사랑과 노력으로 동이는 장미와의 우
 정도 지켜나가고, 아버지의 농장운영
 으로 동이네 가족은 활기를 되찾는
 다. 생활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
 을 겪어 나가면서 동이는 세상에는
 자신보다 굶주리고 할벗은 이들이 많
 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. 그러면서 잡
 부일을 하던 소녀가장 금란이 누나에
 게 도움을 주려고 돼지저금통에 용돈
 을 모으기 시작하는데, 이런 동이의
 생각은 동이네 반 친구들은 물론 학
 교 전체로 퍼져 돼지저금통에 용돈모
 으기가 시작되고 불우이웃 돕기로 번

져간다. 돼지저금통속의 부처님이 화
 현하는 것이다.
 또 동이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
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,
 죽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
 일평생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하
 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. 이 책은 이
 러한 이야기 정감을 통해 어린이들의
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생활속
 에서의 작은 실천을 통해 바르고 깨
 끄찬 마음을 지닌 사람으로 자랄 수
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다.
 이 책은 불교방송 구성작가, 출판
 사 편집장을 역임하고 현재 왕성한
 시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권대용씨가
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지혜와 용기를
 심어주고 불교사상을 쉽게 이해시키
 기 위해 펴냈다. 또 우리나라 전통적
 인 정서를 그림으로 그려온 한병호씨
 의 삽화는 친근하고 뜻뜻한 동화적
 감동을 자아낸다.

이은자 기자

‘한국사찰보감’ 펴면 옛절 5200곳 만난다

이동술씨 18년동안 자료 발굴정리

신라-백제-고구려-금강산
 유점사를 위시해 불교전래
 이후 한말(1910년)까지의
 국내에 건립됐거나 또는
 그 터만 남아있는 사찰
 5200곳을 수록한 한국사찰
 총목록 <한국 사찰보감
(우리출판사)이 나와
 화제다.



이 책은 이동술씨(前 국
 민대 고전실 근무)가 18년
 동안 발굴 정리한 자료를
 바탕으로 펴낸 것. 민족종
 교, 호국불교로서 민족문
 화를 주도했을 뿐 아니라
 우리역사와 함께 발전과
 퇴행을 거듭해온 사찰의 면모를 수집, 기록한 이 책은
 과거의 전모 파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불교역사
 의 흐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.
 특히 사전식(가나나 순)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도
 록 편집된 이 책은 금석문, 역사류, 문집류 등 많은 전
 적과 사료를 색출 분석해 사찰의 위치 연혁 설화 부속
 압자 유형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등을 수록했다. 또
 1910년 이후 건립된 사찰이라도 공익기관에서 발행된
 자료를 통해 중건(重建)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도 모
 두 정리했으며, 각종 문헌류에 나타난 인명(人名)·자
 호(字號)와 부속압자를 제외한 사찰을 시도별로 구분
 해 수록했다.
 이 책에 실린 사찰에 관한 여러 기록들은 우리의 역
 사, 문화 연구와 불교사상 및 고승연구의 길잡이가 될
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“역사의 인과법칙 담았어요”

성낙주씨 장편소설 '왕은 없다' 출간

“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을 역
 사적 근거와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역
 사의 진실과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드러
 내 보이고, 기존의 역사소설과는 차원을
 달린 새로운 신선한 문학적으로서의
 역사소설을 정립하고 싶었습니다”
 2년전 <차크라바르탄>으로 불교소설의
 새로운 장을 열었던 소설가 성낙주씨는
 야심에 찬 신작 <왕은 없다>(들녘 刊 전2
 권)를 이렇게 설명한다.
 <왕은 없다>는 아버지 태종에게서 외면
 당하고 아우 충녕(세종)에게 왕위를 내주
 어야 했던 양녕대군의 주변과 내면세계를
 통해 조선 건국초 70년의 역사를 새롭게
 펼쳐 보이고 있다. 언뜻 보기에는 절대권
 력의 허무를 담고 있는 듯 하지만 작기는

“권력을 무조건 부정하기 보다는 현실을
 움직이는 가장 큰 에너지로써 보다 긍정
 적이고 창조적인 권력의 필요성을 담고
 싶었다”고 말한다. 양녕의 변화된 권력관
 을 통해서 왕권 이동의 이면에 감추어진
 인과와 법칙을 규명해 내고, 불교와 유교
 의 첨예한 충돌의 시대를 당시의 유교와
 불교를 대변하는 김익경과 부공이라는 인
 물들 등장시켜 시대정신과 인간의 본질을
 유려한 문체와 세밀한 내면심리로 펼쳐보
 인다.
 “탐치치로 가득 쌓인 인간의 삶이 권력
 을 이용해 야기시키는 많은 부작용들을
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의 힘이
 요, 이 소설에 등장하는 소신공양도 조선
 초기의 파비르내를 회상하는 중요한 상징



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”고 설명하는 작가
 는 이를 통해 종교역할의 중요성을 강조
 하고 있다.
 “쓰고 나서는 또 비워놓아야 채워지는
 법, 앞으로 단편보다는 성장소설, 기획
 소설 등 장편소설 쓰기에 계속 힘을 계
 획”이라는 성낙주씨, 지난 2년간 새로운
 역사소설 쓰기에 몰두해 왔던 그는 그 러
 나 역사소설을 3류소설쯤으로 비하하는
 우리의 현실이 못내 안타깝다고 말한다.
 <은>

새로운 책

▲**힌두교의 이해**=힌두교의 자연적 인종적 배경과 특성 등을
 통해 힌두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책이다.
 특히 이 책은 불교의 사천왕은 힌두세계의 4방위 신이라는 개
 념이 도입된 것이라는 등 불교의 힌두교화와 수용형태를 설명하
 고 있다. 불교가 인도라는 토양에서 힌두적인 사고를 그 배경으
 로 하여 발생했고, 힌두교와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성장했다는
 사실을 강조한다. <세창출판사 1만원>
 ▲**하늘과 땅과 인간**=고건총리의 아버지이자 학자인 고희공
 응의 수상록이다. 인간과 운명, 지식, 교육, 문화 등 인생살이의
 이야기들을 담았다. 이 책에는 근 한세기를 이 땅과 함께 호흡
 해 온 한 노철학자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들이 불교적 사유로 펼
 쳐진다. <운주사 7천원>
 ▲**월계수 꽃의 밤새를 맡았는가**=오소라즈니쉬가 일본의 선사
 이규(1394-1480)의 시 가운데 주목받은 13편의 시를 선별하여
 그 깊은 메시지를 쉽고 명쾌하게 전하고 있는 책이다. 여기에



수록된 시들은 모두 이규라는 별난 일본선사의 진하고 깊은 인
 간적 삶에서 우러나온 것들로, 라즈니쉬의 깊은 각성과 함께 하
 모니를 이룬다. <태일 1만원>
 ▲**기도의 법칙**=사랑하는 가족, 이웃, 나아가 온 인류와 지구
 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더불어 사랑하고 진보하는 가운데 참다운
 행복을 누리는 길을 안내하는 따뜻한 명상서다. 이 책은 대학입
 시 합격을 위해, 성공적인 기업경영을 위해, 이상적인 배우자를
 만나기 위해,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, 평화로운 죽음을 맞
 기위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
 있다. <정신세계사 8천원>

불교사상의 이해 불교 교재편찬위

학자 15명이 쓴 현대시각의 불교사상



우리의 시대와 사회에
 불교의 진리는 어떻게 해
 석되어야 하고 또 어떤 모
 습으로 존재해야 할 것인
 가. 이런 고민속에 선보인
 책이 바로 <불교사상의 이
 해>다.
 이 책은 동국대학교(경
 주캠퍼스)의 교양교재로
 사용하기 위해 펴냈다.
 깊고 방대한 불교사상
 체계를 박성배(뉴욕주립대), 윤원철(서울
 대)교수 등과 동국대 이봉춘, 이만교수 등
 총 15명이 집필을 맡았다.
 종교로서의 불교, 사카무니 붓다, 근본불
 교, 대승불교, 불교와 사회 등으로 구성해
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, 현재의 시대
 와 사회에 동떨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해석
 을 시도했다. 부록으로 불교용어 해설, 인
 도불교 지도를 실었다. <불지사 8천원>

화제의 책

판만대장경에... 진현중 지음

108가지 불전설화로 대장경 읽기



방대한 판만대장경 속의
 가르침을 불전설화를 통해
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
 한 것이 바로 <판만대장경
 에 숨어있는 108가지 이야
 기>이다.
 우리의 생활속에 깃들여
 있는 진리의 가르침으로
 안내하는 이 책은 올봄
 <한권으로 읽는 판만대장
 경>을 선보였던 진현중씨
 (번역가)가 펴냈다.
 이 책은 ‘이것은 괴로움이다’ ‘이것은
 괴로움의 원인이다’ ‘이것은 괴로움의 소
 멸이다’ ‘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
 길이다’ 등 총 4장으로 나뉘고 그와 관련된
 108가지 이야기를 담았다. 판만대장경에
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궁금해하는 독
 자들의 감흥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
 다. <혜음 6천원백원>

◇금주의 베스트블서 10

순위	도서명	지·판자	출판사
1	부드러운 말엔더 미묘한 향이 있다	일 타	효 림
2	사실구재란 무엇인가	효 타	행 원
3	불교인문	조계종교인문	조계종출판사
4	49재 공덕과 의미	편 집 부	이 바 지
5	관음신앙 관음기도법	김 현 준	효 림
6	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	성우·지현	민 족 사
7	티벳사자의 서	류 시 화	정신세계사
8	하늘호수로 떠난 여행	류 시 화	열 림 원
9	한국사찰음식	김 연 식	우리출판사
10	백팔고개 넘어 부처되기	계 환	시 공 사

구입문의: (02)737-0695

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(저작상) 수상작

사찰, 그 속에 깃든 의미

김현준 지음

“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.
 그것은 불교정신이 창출한 하나의 생명체이다.”

신국판 / 7,000원

사찰의 초입(初入口)인 일주문에서부터 법당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에 간직되어 있
 는 뜻, 범종 등의 사물(四物), 석등·탑·법당의 구조와 변천을 상세히 밝혔을
 뿐 아니라, 대웅전·대적광전·극락전·미륵전·관음전·명부전·심상당 등에
 깃든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정신을 새롭게 느끼게 한다.

• 불교신행연구원 <불교문화배움터> 동상 안내 •

- 매월 첫째 목요일 : 불교미술전공교수초청 특강(불상·불화·목공예 등)
- 매월 셋째 목요일 : 김현준 원장 '사찰, 그 속에 깃든 의미' 강의
- 시간 : 오후 7시 / 장소 : 대학문화원 (장충동 영버스터미널 옆)
-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. 연락주시심소 (02) 587-6613



김현준(金鉉竣)
 現 불교신행연구원 원장
 필관 <법공양> 발행인

불교신행연구원

관음신앙·관음기도법

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불교신행지침서

“관세음보살은 어떠한 분이신가?
 그분의 대자비를 ‘나’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?”



대다수 우리나라 불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!
 참된 기도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님의 구원능력과 자비의 참뜻, 관음
 신앙의 뿌리를 잘 알아서 참된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, 관세음보살의 자비
 광명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관음관법과 기도법을 분명히 알아야
 한다. 이 책 속에는 관음신앙의 뿌리부터 관음의 종류, 관음의 구원능력,
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알기 쉽게 풀이되어 있다. 고난
 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.

제1장 관세음보살 어떠한 분이신가? (관음신앙의 뿌리,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) / 제2장 자비관음의
 여러가지 모습 (성관음·천수관음·십일면관음·육관음 등) / 제3장 관음관 (일념관법·경전 속의
 관음관법 등) / 제4장 관음기도법 (관음역신관·관음염불·자장삼배기도법 등)

B6 / 160면 / 값 3,500원

경·봉·대·선·사·일·대·기

바보가 되거라

김현준 지음



“예리한 지혜의 눈과 깊은
 자비심으로 모든 이의 자유로운 삶을
 일깨웠던 경봉대선사.
 누구든지 이 책을 펼쳐들면
 가장 가까운 곳에서
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
 진솔한 대도인을 만날 수 있게 된다.”

신국판 / 220면 / 값 4,300원